호남신문의 새 로고는
타원형의 우주안에 '태풍의 눈'을 형상화해
무한한 역동성과 함께 정의로운 언론으로
특히 사회적 약자에 더 큰 관심을 갖는 인간
존중의 정신이 배어 있습니다.

호남신문

호남신문 자매지
국민복지신문
2010년 8월 30일 창간

(대표전화) 062-229-6000 1946년 10월 26일 창간

i-honam.com

제 3011호 (음력 9월 4일)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이용섭 시장 통합론 선회…'교착상태' 시·도 논의 급물살 타나

다른 대안·방식·시기 등 다양한 가능성 열어둬

경제통합론 역제안한 김영록 전남지사에 '화답'

광주·전남 시·도 행정통합을 제안한 이용섭 광주시장이 통합방식이나 시기 등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통합논의가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이 시장은 19일 광주시의회 송형일 의원의 시·도통합 관련 시정질문 답변에서 "바로 (행정)통합을 추진할 것인지, (김경수 경남지사가 추진하는)메가시티 연합을 거쳐 통합할 것인지 통합방식이나 통합시점은 종국적으로 시도민이 결정할 문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말미에 "김영록 전남지사가 말한 경제통합이나 메가시티 등도 논의기구에서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전남도와 광주시는 시·도민에게 통합에 따른 장단점을 소상하게 이해하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원활한 논의와 공정·투명한 정보제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광주·전남이 두 차례 실패한 행정통합을 이야기하면서 대구·경북 통합 사례를 주장했던 이 시장이 행정통합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통합 방식과 시기 등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탈 지 주목된다.

그동안 이 시장과 김 지사는 대세인 시·도 통합에 대해 찬성했지만, 시기와 방법 등 각론에서는 입장이 서로 달라 '동상이몽'속에 논의가 진척을 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날 이 시장의 입장 선회는 김 지사가 역제안한 경제권 통합론을 수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민없이 즉흥적으로 진행했던 행정통합 논의를 이 시장이 철회했다는 시각도 있다. 또 이 시장은 송 의원이 제안한 시도 공동용역발주 제안에 대해 "제가 제안했던 것도 지금 바로 통합하자는 것이 아니라 용역 등을 통해 통합논의를 진정성 있게 시작하자는 것이다"면서 "시도간에 합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통합논의기구에서 공동용역을 의뢰하는 방안을 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역시 김 지사가 지난주 도정질문 답변에서 "통합은 1단계로 광주전남연구원이 방법과 절차 등을 연구하면서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2단계로 민선 8기 공론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발언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처럼 이 시장과 김 지사가 통합방식, 시점, 절차 등에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통합논의가 일단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이 시장의 통합이 행정통합만이 아닌데, 그렇게 비쳐졌지만, 통합방식이나 시점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뒀다는 점에서 시도간 통합논의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남도 한 관계자는 "이 시장의 오늘 입장은 결국 통합논의를 신중하게 시간을 갖고 진행하자는 김 지사의 뜻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통합논의는 전문가 집단에서 머리를 맞대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통합논의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처럼 진행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결국 이 시장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그동안 고민이 부족했다는 점을 시인한 것 아니냐"면서 "앞으로 좀 더 치밀한 논리와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공사구간 피해 호소

발파 진동으로 한옥주택 지붕 기왓장 깨지는 등 주거지 파손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2공구 개설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영암군 삼호읍 거주한 윤 모 씨에 따르면 시공사인 모 건설이 공사 중 발파 진동으로 인해 한옥주택 지붕의 기왓장이 깨지고 건물 벽이 갈라지는 등 주거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청와대에 탄원을 했으나 전남도청 관계자는 현장에 실사하여 노후주택이고 사용재료, 시공품질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왔다며 매우 격노했다.

시공사와 감리회사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감리사 대표와 도청관계자가 순천시에 있는 환경조정 분쟁위원회에 함께 가서 보상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여 접수 했으나 순천시에 있는 분쟁위원회가 아니고 세종시에 있는 환경 분쟁위원회로 드러났다.

건설사 관계자는 이런저런 사고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했으니 보험회사에서 피해보상을 해줄 것 이라고 했다면서 노인인 저를 속인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윤 모씨의 주택은 2014년에 사용 승인된 한옥주택이다.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설공사 전까지는 아무런 하자 없이 안락한 주거공간 이었으나 진입도로 공사 후 부터 지붕의 기왓장이 깨지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더욱이 윤 씨는 주택문제로 인해 고혈압, 만성 바이러스로 건강에도 이상이 생겨 병원 치료 중이라고 밝히며, 이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청와대, 국회, 전남도청 에서 1인 시위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공사와 감리회사는 환경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법의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단이 19일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총탄 흔적을 찾기 위한 정밀 조사에 나서기 앞서, 통행 통제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다.

문체부 복원추진단 옛 전남도청 '5·18 총탄 흔적' 조사

5·18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 일대에서 총탄 흔적을 찾기 위한 정밀 조사가 본격화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단(복원추진단)이 19일 옛 전남도청 건물을 중심으로 1980년 5·18 당시 총탄 흔적을 정밀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에는 3D 스캔, 전자파·감마선 촬영 검사, 적외선 열화상 탐사, X-ray 검사, 고정밀 금속탐지기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활용된다.

첨단·비파괴 분석 기술을 통해 옛 도청 안팎의 보수 과정에 훼손됐거나 외관상 드러나지 않은 탄흔을 찾고, 복원 공사에 앞서 원형을 가급적 보존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날부터 착수한 1차 조사는 감마선 촬영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옛 도청 본관·별관·회의실과 주변 수목 등을 대상으로 탄흔을 찾는 것이 목표다.

복원추진단은 방사능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도청 주변에 안전 가림막을 설치했다. 지하철역·지하상가 입구도 2곳도 차단됐다. 통제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김민정 기자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 균 〈도문대작〉